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0. 22.(목)(배포 후 즉시) 배포 2026. 10. 22.(목)

원전 공론화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12월 11일~13일 개최 확정

- 전문위원회는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 전문가로 구성
- 숙의설문지는 찬반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어느 범위로'를 묻는 방식으로 작성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21일 오후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였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는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였다. 전문위원회는 10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가 준비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방향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에 대한 설문방식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숙의설문지(안)를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다. 첫째,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는다. 원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묻지 않고, 모든 쟁점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어져야 하는가"로 묻는다. 둘째, 찬반 투표로 읽히는 형식을 쓰지 않는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상한 등 범위를 각각 물어 답하게 한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열기로 하였다.

은재호 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론화의 균형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원자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된 만큼, 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며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1. 제3차 회의 개요
2. 전문위원회 명단. 끝.

담당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대변인	이윤석 (010-5505-3354)
		위원	대변인	심성희 (010-4709-7364)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론화지원단	책임자	부단장	권현철 (044-201-7811)
		담당자	서기관	송정욱 (044-201-7551)
		담당자	서기관	조희정 (044-201-7552)
		담당자	주무관	최유진 (044-201-75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제3차 회의 개요**

1. 개요

○ (목적) ❶제2차 회의 결과 보고, ❷전문위원회 구성(안) 의결, ❸공론화 세부의제·숙의설문지(안) 및 권고문 양식(안) 논의

○ (일시/장소) ‘26.10.21(수) 14:30~17:50 / 전력기반센터 2층 소회의실

○ (참석자) **위원장 및 위원 8명**(은재호, 심성희, 이윤석, 임재규, 조성배, 허창회, 조은영, 고재근), **지원단 단장·부단장**

○ (안건) 1. (보고) 제2차 회의 결과
2. (의결) 전문위원회 구성(안)
3. (보고) 공론화 세부의제·숙의설문지(안) 및 권고문 양식(안)

참고 2 전문위원회 명단

분야	사진	성명	소속 및 지위
환경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원자력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
		최성열	서울대학교 교수
중립		김종익	한국공학대학교 조교수
		박찬국	한국외대 조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